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8월 8일(화) 16시: 사무국 주간회의 및 회원의 날 기획회의

■ 연구원 소식

“화양연화, 꽃보다 아름다운 순간을 나눕니다” 2024년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달력 사진 공모전

공모전 마감의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회원의 기억과 이야기가 담긴 달력 제작을 통한 회원 공감대 형성 및 참여 확대를 위해 「2024년 달력사진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회원님의 앨범 속에 잠들어 있는 오래된 사진을 꺼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누리집 공지사항과 개별 안내드린 SNS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구원 회원의 날 및 개원 17주년 기념행사 안내 (9월 2일 ~ 9월 3일)



이오당 야경

2006년 9월 2일 공식적으로 대문을 열었던 우리 연구원의 열일곱 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일(土)~9월 3일(日) <1박 2일>"**에 걸쳐 회원의 날과 개원 17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회원의 날은 장소는 **"전주한옥마을 내 이오당"**입니다.

이오당은 전주 한옥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이어받은 전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고향집 뒷마루에 앉은 편안함으로 하룻밤을 보내며 새로운 기운을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원 기념 회원의 날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추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연구원에서 참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구원 유선전화 (063-286-3005)나 사무국장(010-6275-0409)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 역사속의 오늘

용금호의 갈림길 - 1973년 8월 8일

유신헌법 공포 뒤 귀국하지 않고 반유신 민주화운동을 벌이던 김대중은 1973년 8월 도쿄에서 반 유신 집회를 앞두고 있던 중, 중앙정보부 요원을 필두로 한 일단의 괴한들에게 납치당한다.

마취약을 맞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오사카로 옮겨진 뒤, 중앙정보부가 운영하던 공작선 '용금호'에 실려 수장당하기 직전, 일본해상자위대 함정이 추격하자 납치·살인 계획을 포기하였다. 닷새 뒤 김대중은 동교동 자택 앞에서 발견된다.

사건을 조사한 일본 경찰은 주일 한국 대사관 직원이 납치 사건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주일 한국대사관 김동운 일등서기관으로 밝혀지자, 출두를 요구했으나 한국정부는 거부했다. 이후 사건은 한국 공권력에 의한 일본 주권침해라는 한·일 양국의 외교문제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조정 및 한·일 간의 막후 절충으로 김동운 해임, 김대중의 해외체류 중 활동에 대한 면책,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의 진사방일(陳謝訪日) 등이 합의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후 김대중은 가택연금과 동시에 유신정권 내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당했다. 유신체제 10개월 만에 일어난 이 사건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벌이던 자신의 정적을 암살하려는 음모로 드러나 국내·외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

우리 현대사에서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해방 직후뿐 아니라 한국전쟁 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부통령이었던 장면은 1956년 암살 위기에서 가벼운 총상으로 살아났고, 진보당 당수 조봉암은 1959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형을 당했다. 유신체제 이후 벌어진 대표적 의문사 가운데 하나인 장준하 선생 피살사건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김대중이 1973년 용금호에서 바다에 던져져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다면 유신체제가 어디까지 이어졌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유신체제에서 김대중이 살해당했다면 1980년 '광주항쟁'도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모를 일이고, 1980년 '광주항쟁'이 없었다면 87년 6월 항쟁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1973년 8월 용금호에서 벌어진 생사의 갈림길은 20세기와 21세기 우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가늠할 수 없는 길이었다.